



"말을 낱거든 시골로 보내고 아이를 낱거든 공자의 문으로 보내라"

뜻: 말은 넓은 들판에서 튼튼하게 자라야 하고, 사람은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학문을 배워야 크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교육 · 학문 · 성장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말	을	↓	낱	거	든	↓	시	골	로	
보	내	고	↓	아	이	를	↓	낱	거	든
공	자	의	↓	문	으	로	↓	보	내	라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말	을	↓	낱	거	든	↓	시	골	로	
보	내	고	↓	아	이	를	↓	낱	거	든
공	자	의	↓	문	으	로	↓	보	내	라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↓				↓				
			↓				↓			
			↓				↓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모] [나] [사] [바] [오] [나] [가] [모] [바]

웹에서 보기

